



율법관

## 옛 계명과 새 계명

**1 기도**    **2 찬송** 주 안에 우린 하나 (143쪽)

**3 말씀 읽기** 요한일서 2:7-8

-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4 말씀 이해하기**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새 계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계명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새 계명인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종종 율법을 사랑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굴레와 족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자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22:34-40). 이 두 가지가 구약 율법의 강령, 즉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성도에게 사랑을 명령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1-4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5-10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주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정신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행위는 외식이 될 뿐입니다. 또한 규범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사랑과 규범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에 성도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사도는 자신이 새 계명을 쓰지만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과 같다고 말합니다.
2. 교회가 율법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3. 구약이 가르치는 옛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_\_\_\_\_
4. 사랑이 없는 행위는 이 되며, 규범이 없는 사랑은 이 됩니다.
5. 내 삶에 사랑과 규범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_\_\_\_\_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